



남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개소식 기념촬영

# 동남권 산모의료센터 개소

### 남원의료원 5층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임산부·신생아 24시간 돌봐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등 동남부 농촌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지난 29일 문을 열어 진료와 출산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부인과 의료 진료체계 부족으로 산모의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등 동남부 소도시권의 산모에게 전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이 4월 29일에 있었다.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남원의료원 내 5층 병동을 산모와 소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원주 남원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등 60여명의 내외

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산모보건의료센터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저출산 시대에 산부인과 감소로 발생된 분만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의 3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자하여 산모와 신생아 전용 병동을 구축하고,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 보강, 분만 통증시 EMS 등 응급콜 서비스와 다문화 가정 통역을 위한 통역사를 확보하는 등 응급상황을 요하는 출산상황에 24시간 대처가능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외에도 산모보건의료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과 빈곤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과정으로 전문간호사가 산육기 중에 방문하여 산후회복 등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를 실시하며, 산전·산후 임산부 건강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4시간 분만 산부인과가 전문인 동남부 산악권에 전국 최초로 구축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어 놓여준 산모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고 응급을 요하는 출산상황에 대처 가능하게 되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것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실, 순창은 물론 인근 지역 산모들이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센터 운영과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물길상류 옛도랑 복원사업 남원시민과 함께

### 시, 비점오염원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적 물관리·도랑정비·주민실천 운동 등 추진

남원시는 물길 상류인 내집앞 도랑에서부터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는 옛도랑 복원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특성이 변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물관리, 도랑정비 및 주민실천 운동 전개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지역생태계 복원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운봉읍 삼산마을 등 7개소에 30억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생태수로 조성 및 수질정화시설 꽃창포·미나리 등을 식재하여 테마가 있는 정겨운 도랑을 복원하는 '1마을 1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작년에는 주생면 관촌

마을 도랑을 복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6,000만원을 투자 금지면 매촌마을 옛도랑 복원사업을 지난 6일 착공하여 현재 도랑정비 중으로 이달 중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도랑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민·관협력 도랑복원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강살리기남원시네트워크를 2012년 11월 발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는 지난해 주민의식 전환과 실천 유도를 위한 환경교육 체험 7회, 캠페인·모니터링 9회 추진하였고, 특히 주생초등학교 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및 빗물을 재활용하는 '남원의 빗물저금통 1호'를

설치하고 활용방법을 소개하여 버려지는 빗물도 모으면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물사랑 환경의식 고취에도 힘썼다.

올해에도 지역하천 핵심리더 양성, 강살리기 블로그 제작 및 환경체험 교육,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도랑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은 물길상류인 내집앞 도랑살리기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쓰레기줍기, 물절약, 무분별한 생활하수 방류 안하기 등 생활 속 실천과 협조를 당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옛도랑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길거리 음식 발굴 경진대회

### 고창 고수 '누구나 학교'... 이종호 박사 '기상재해' 특강도

고창군 고수면 '누구나 학교'가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길거리 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9일 고수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고수면주민자치위원회, 고수면이장단협의회, 고수면 주최로 열린 '누구나 학교'는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고수면 출신인 기상청 이종호 박사를 초빙해 '기상재해 바로 알기'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종호 박사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농업과 접목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박사는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장, 국가태풍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지구환경시스템 연구과장을 맡고 있다.

고창군 전 지역에 지난 2005년 12월 초부터 21일간 폭설이 내려 적설량 220cm를 기록 600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이 박사는 고창에 기상관측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후 기상청과 공동으로 대산면에 기상관측소가 설립됐다.

한편, 특강 후에는 '길거리음식 발굴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5개팀(고수누구나학교후원회-애기단풍도시락, 고수새마을부녀회-닭꼬치, 고수농가주부모임-오명국, 고수한글공부반-조각김치전, 고수경로당-야초 계란이) 참여하여 솜씨를 자랑했다.

대회 결과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의 평가를 합산하여 '애기단풍도시락'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승현 고수면장은 "고수 문수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맛있고 저렴한 길거리 음식을 제공해 또 오고 싶은 명품 고수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로컬푸드



# 6탄약창, 관촌 강풍 피해능가 도와

임실군 관촌면은 지난 겨울 폭설과 최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6탄약창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피해 돕기에 나섰다.

6탄약창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10명의 장병을 피해 입은 월은·공덕 마을에 파견해 비닐하우스 철거 및 주변 환경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도움을 받은 피해 농가는 "인력부족으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장병들의 도움으로 시름을 떨치고 영농준비에 매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 성수면, 체육공원 준공 눈앞

임실군 성수면에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장으로 활용될 성수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성수면 양지리 226번지 일원에 10여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014년부터 부지면적 8,438㎡ 규모로 다목적 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팔각정 등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해 내달 초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허광욱 이사장, 임실군에 장학금 전달

### 취약계층 아동 24명에 100만원 장학 증서 수여

고향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역 출신 독지가의 장학금 지원 소식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재)광영공익재단은 지난 29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취약계층 가정 24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임실군 삼계면에서 1936년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제의 핍박과 6.25전쟁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고학의 결실을 힘겹게 맺은 허광욱 광영공익재단 이사장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

동·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본인 재산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허광욱 이사장은 "제가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도울 수 있어 기쁘고, 장학생들이 장래에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허광욱 이사장의 큰 뜻에 감사드리며, 장학사업에 더욱 노력해 살기 좋은 임실건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경기도 안성시 농민대학 40여명 임실 삼계면 오지한과 벤치마킹

임실군은 경기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민대학 40여명이 삼계면 오지한과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29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성시 농민대학 회원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견학한 후 삼계면 소재 오지한과를 방문해 전통방식 수작업으로 한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행사를 가졌다.

한편, 오지한과는 어머니 정순자씨와 아들 신진명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채널 A '먹거리파워' 프로그램에서 올해의 착한 한과로 선정된 바 있는 전통방식의 수제 한과집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기후환경 네트워크 발대식

고창군에서 에너지 절약과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기후환경 네트워크' 발대식이 개최됐다.

지난 29일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발대식은 김상호 고창부군수와 이상호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 전북 기후환경 네트워크 대표, 실천단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기후변화 관련 동영상 상영, 고창군 기후환경 네트워크 구성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교은 회장은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군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왔다"며 "올해는 가정과 상가, 학교 등 산업부문에서도 에너지 진단 컨설팅, 환경의 날 환경 체험 행사,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환경보호 캠페인 등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